

# 편집자와 외래어 표기

김찬국

전 연세대부총장

한글학자 최현배님은 한글이 세계문자 사상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생각하고 이를 갖고 닦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온 어른이시다. 필자는 이들 한글학자들의 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말과 글을 바르게 쓰고 한글문화의 창조적인 특이성을 계승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도서들이 출판되어 나와 출판문화의 전성기를 맞은 듯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더욱이 한글로 책들이 다 나오게 되어 한글문화권의 독특성에 다시 자랑을 느낀다. 그러나 이처럼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 안에 담긴 글 가운데는 이른바 외래어가 한글발음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의 말과 글 사용에 익숙케 돼 도리어 우리 말과 글의 순수성이 침해되어가는 것 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들이 비록 외래어를 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으로 우리 말과 글로 바꾸어서 독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몽적인 작업이 저자 자신과 교정을 맡은 출판사의 편집인 교정인 사이에 사전의 이해와 수정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우리 한국이 중국의 한문문화권에서 받은 영향이 절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말과 글 등 단어들이 거의 한문사용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한글의 독자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한자어로 한글표이 말과 글로 옮겨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더욱이 오늘날 지구촌적인 소식과 정보의 교환과 교류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말과 글이 외국어의 말과 글 그대로 사용되어 편리한 점도 많겠지만, 언론계통에서 일하는 전문인들이 외래어를 우리 말과 단어로 번역 또는 의역을 해서 한글 또는 한문으로 적합한 단어를 만들어 써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연결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출판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필자에게 글을 부탁할 때에 가급적이면 우리말에 가까운 단어를 만들어서라도 써서 독자들이 하여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서에 적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출판계가 연합하여 새로 만든 좋은 한글 단어와 표기법을 정리하며 한글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널리 보급하도록 하는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물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과 글이 바로 청취자 모두에게 전달되어 습관적으로 외국어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외국어 사용의 오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는 수입된 외국의 작품과 논문과 글들을 우리것으로 옮길 때에는 번역자와 편집자가 특별히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문화부와 교육부 공보부는 우리 말을 바르게 닦고 갈아 나가는 데에 함께 정책적인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야 되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출판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활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집필자와 편집자와 교정자 사이에서 문체된 낱말들을 골라서 한글발음으로도 통일하고 더 나아가 우리 말과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설명을 붙여 독자들에게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봉사가 있기를 기대한다.

## 뉴스 2 “출판진흥에 국가예산 투자 바람직”·외

### 특집 4 책을 기리는 글

김주영 / 이기백 / 정문길 / 김원일 / 김요섭  
정한숙 / 서정기 / 조동화 / 정진홍 / 김수행  
김열규 / 김문환 / 박재삼 / 이만갑 / 김인회  
허 웅 / 임영숙 / 목정배 / 김수남 / 이광주  
김태길 / 김호근

8 니체 / 벤야민 / 브레히트 / 김현 / 보르헤스  
쉬바이케르트 / 예코 / 김시습 / 정약용 / 소로우  
기성 / 모음 / 그를리에 / 그르니에 / 프루스트  
쇼펜하우어 / 김우창 / 김요섭

### 연중기획 12 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①

좌담 : 개화기부터 일제시대까지

김윤식 / 박성래 / 신용하 / 유재천

### 자료 15 1992년 문화부 추천도서

- 서평16 임효재 「한국고대문화의 흐름」— 이기동  
공간환경연구회 「한국공간환경의 재인식」— 강현수 강현수  
17 김광명 「칸트 판단력비판 연구」— 백종현  
허 정 「에세이 의료한국사」— 송상용  
18 이 일 「서양미술의 계보」— 오광수  
김윤식 「근대사와 인식」— 김현자  
19 안정호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신철하

### 세미나 20 ‘책의 해’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 리포트 22 국제저작권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화제의 책 23 거문도에 미친 식민시대의 영향

- 이책그사람 24 「중국문학사전」 낸 김혜명교수  
「반리얼리즘문학론」 낸 황병하교수  
25 「어린 민중」 낸 정세기씨  
「한국화 감상법」 낸 박용숙교수

### 세계의 책 26 천문학의 숲과 나무 같이 본다— 배병삼

- 28 독자서평  
30 화제의 신간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 謹賀新年

애독자와 편집서평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3년 새해

한국출판금고 이사장 鄭鎮肅  
상임이사 崔學秀